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윤상근¹, 이창환^{2*}

¹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²서강대학교 심리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concept and Ego-resilience of middle-school students

Sangkeun Yoon¹ and Chang H. Lee^{2*}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중학생 6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이었으며,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보다는 자아개념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concept and Ego-resilience as perceived by middle-school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to 699 middle school students who live in Seoul area.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social support, Self-concept and Ego-resilience. Most importantly, the variable of Self-concept was stronger predictor for Ego-resilience than Social support.

Key Words : Ego-resilience, Self-concept, Social support, Middle school student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보다 사회에 적응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 그리고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함께 수반해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는 부담감으로 인한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정신적 불안이나 적응상의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음은 물론 심각한 적응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정상적인 인생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요즘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도포기나 비행행동, 자살 등의 다양화된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 특히 좌절을 느끼고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완고한 모습을 보이거나 굳어 있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

이 연구는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문을 바탕으로 하여 지도교수가 작성하였음. 본 연구는 2009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일부 지원에 의한 연구임 (200911032).

*교신저자 : 이창환(chleehoan@sogang.ac.kr)

접수일 09년 08월 12일

수정일 (1차 09년 10월 05일, 2차 09년 10월 12일)

게재확정일 09년 10월 14일

한다[11]. 자아탄력성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위협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불안하지만 이겨내는 전략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킬 것인지 혹은 적응 체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성격체제로서의 한 능력이다[12, 13].

사회적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 받는 대상이고,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의사소통 관계상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정보이다[14].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타인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자극들은 인간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제지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부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완충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한다[3,9,7,2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심 변인인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개념은 개인의 기본적인 준거의 틀로서 자신의 신체적, 성적, 가정적, 직업적, 사회적 여건 등에 따른 자기 존재의 본질이나 위치, 역할들을 파악하여 생활에 적응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서의 자아개념은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이며[17],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그리고 자아실현 측면에서 필수적이다[6,18]. 자아개념의 발견에 실패하고 비정상적인 생활양식에 빠질 때, 긴장과 불안에 직면하며, 여러 가지 부적응이나 신경증 징후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아주 중요하며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응에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 대처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자아개념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날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길러져야 할 올바른 감정이나 정서, 태도 및 성격 등의 정의적 측면보다는 지적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2]. 우리 학교교육이 여러 가지 상황 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전인교육을 일반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학습자의 지적특성들과 함께 정의적 특성, 즉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의 적응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부적응으로 교육적 기회를 낭비하기 보다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잘 적응된 생활을 영위할 것을 당연히 기대한다면 학교 적응 문제는 교사에게는 물론 부모와 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사이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미미했던 현장연구로 서울시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맺고 있는 주된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 형제, 교사, 친구 등의 지지를 통해 얻은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이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2. 연구 가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와 관련된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지지가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우선 알아보았다. 그리고 자아개념은 기능적 측면에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아개념과 사회적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중다회귀로 알아보았다. 이에 해당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개념 수준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 것이다.
- 가설 3. 자아개념과 사회적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3. 연구 방법

피험자.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중학생 1, 2, 3학년 6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는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16]이 개발한 것을 [4]가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29개의 문항으로 하위 척도로는 자신감(능숙한 자기표현력), 대인관계 효율성(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 낙관적 태도(낙관주의), 분노조절(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력)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총점 범위는 29~145점이며, 하위 척도별로는 자신감 9~45점, 대인관계 효율성 8~40점, 낙관적 태도 10~50점, 분노조절 2~10점으로 되어 있다. 부정적인 진술문으로 되어 있는 문항은 역점으로 환원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8]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중요한 지지자들인 부모, 형제와 친구 그리고 교사가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1 =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에서 5 = '매우 그렇게 느낀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개념 척도는 [5]가 개발하고 [10]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아개념 18문항, 학문적 자아개념 28문항, 중요타인 자아개념 42문항, 정서적 자아개념 28문항 총1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분석은 설문 검사지 자료를 회수한 다음,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사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였고,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상관관계수가 .40~.70사이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가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상·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자아개념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때 사회적 지지의 상·하위 집단은 각각 상위 25%와 하위 25%로 하여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M(SD)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t
	상위 25% 집단 (N1=175)	하위 25% 집단 (N2=177)	
일반적 자아개념	3.07(.43)	2.46(.50)	12.38***
학문적 자아개념	2.98(.43)	2.44(.35)	12.71***
중요타인 자아개념	3.36(.34)	2.68(.35)	18.65***
정서적 자아개념	2.96(.36)	2.50(.36)	11.99***

*** $p<.001$

표 1과 같이 일반적 자아개념, 학문적 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각각은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은 상위집단이 사회적 지지가 낮은 하위집단보다 자아개념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중요타인 자아개념이 다른 자아개념보다 더 큰 집단차이를 보였다($t=18.65, p<.001$).

중요타인 자아개념은 사회 자아개념과 가족 자아개념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대인관계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타인에 대한 지각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더욱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개념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탄력성 전체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일반적 자아개념 .70, 학문적 자아개념 .69, 중요타인 자아개념 .64, 정서적 자아개념 .73이었다($p<.001$). 가설 2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자아개념을 상·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자아탄력성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때 일반적 자아개념 상·하위 집단은 각각 상위 25%와 하위 25%로 하여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일반적 자아개념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M(SD)

구 분	일반적 자아개념		t
	상위 25% 집단 (N1=172)	하위 25% 집단 (N2=185)	
자신감	3.92(.65)	2.73(.57)	18.40***
대인관계 효율성	3.74(.79)	2.79(.70)	12.13***
낙관적 태도	4.21(.60)	2.85(.60)	21.40***
분노조절	3.41(1.04)	2.50(.95)	8.60***
전 체	3.94(.58)	2.77(.50)	20.48***

*** $p<.001$

표 2와 같이 자아탄력성의 하위 척도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 각각은 일반적 자아개념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즉, 일반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상위집단이 자아개념이 낮은 부정적인 하위집단보다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았다. 가장 큰 집단차이를 보이는 척도는 낙관적 태도($t=21.40, p<.001$)였으며, 다음으로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분노조절 순이었다.

같은 방법으로 학문적 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을 각각 상·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자아

탄력성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일반적 자아개념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아개념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비교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다음과 같이 4개의 집단, 즉 일반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A), 일반적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B), 일반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고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C), 일반적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D)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의 하위 척도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에 대한 집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집단의 구분은 일반적 자아개념의 평균값(2.73)과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전체의 평균값(3.88)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자아탄력성에 대한 집단 차이

구분	집단	N	M(SD)	F	Tukey test($\alpha = .05$)
자신감	A	242	3.71(.66)	92.65 ***	A>B, A>C, A>D, C>B, B>D, C>D
	B	129	3.10(.56)		
	C	94	3.45(.67)		
	D	234	2.82(.54)		
대인 관계 효율성	A	242	3.56(.77)	42.55 ***	A>B, A>C, A>D, C>B, B>D, C>D
	B	129	3.04(.67)		
	C	94	3.34(.74)		
	D	234	2.86(.63)		
낙관적 태도	A	242	4.00(.64)	134.82 ***	A>B, A>C, A>D, C>B, B>D, C>D
	B	129	3.23(.60)		
	C	94	3.73(.67)		
	D	234	2.93(.54)		
분노 조절	A	242	3.20(1.00)	15.31 ***	A>B, A>D, C>D
	B	129	2.85(.91)		
	C	94	3.16(1.06)		
	D	234	2.64(.91)		
전체	A	242	3.73(.59)	115.59 ***	A>B, A>C, A>D, C>B, B>D, C>D
	B	129	3.11(.50)		
	C	94	3.49(.61)		
	D	234	2.86(.45)		

*** p<.001

표 3을 보면 각 척도별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집단차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사회적 지지보다는 일반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집단이 더 큰 집단차이를 보이고 있다 (A>C>B>D).

같은 방법으로 학문적 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구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자아탄력성 전체와의 집단 차이를 알아본 결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보다는 자아개념의 효과가 더 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수렴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척도들과 자아개념의 각 척도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투입(Enter)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변량분석의 결과로 예측변수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자아탄력성간의 적률상관관계(Pearson r)는 .80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회귀선의 모델도 적합하였으며(F(8, 688)=152.48, p<.001),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중다선형 회귀분석 결과(R=.80, R²=.64)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 오차	β	
(상수)	-.54	.12		-4.36***
일반적 자아개념	.26	.05	.20	5.26***
학문적 자아개념	.42	.05	.28	8.30***
중요타인 자아개념	.25	.06	.16	4.32***
1 정서적 자아개념	.51	.07	.30	7.77***
정서적 지지	.01	.05	.01	.24
평가적 지지	-.01	.06	-.01	.11
정보적 지지	.01	.05	.01	.09
물질적 지지	-.05	.05	-.05	-1.07

종속변수: 자아탄력성
*** p<.001

표 4를 보면, 자아탄력성에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척도는 그 영향력이 적으며(p>.05), 자아개념의 각 척도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자아탄력성에 영향력이 가장 큰 자아개념은 정서적 자아개념(B=.51)이며, 그 다음으로 학문적 자아개념(B=.42), 일반적 자아개념(B=.26), 중요타인 자아개념(B=.25) 순이었다. 이는 앞서 자아개념과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전체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눈 4개 집단과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집단 차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보다는 자아개념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아개념에, 그리고 자아개념은 자아탄력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을 두 독립변인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보다는 자아개념이 자아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중학생이 지각하는 높은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도움을 주며, 이런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자아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주어졌을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으로서 청소년의 적응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때, 자아개념은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은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며, 한 인간의 높은 적응력은 그 개인의 자아개념 여하에 기인된다고 한 [19]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의 올바른 자아개념의 형성은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정신적 불안이나 부적응에 직면함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자아탄력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정서적 자아개념은 정서 자아개념과 신체 자아개념을 포함하는 상위적 개념으로 비인지적 특성인 정의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특성이다. 정서가 일시적이고 격렬한 감정 변화를 포함하여 수년 동안 지속되는 기본 상태와 다양한 사건에 반응하는 기질적 경향성 모두를 의미한다[15]고 볼 때, 정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기능을 증진 또는 붕괴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적응력을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청소년기에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 정서조절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사회적지지가 자아개념과 연계되었을 때에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모든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심리적 변인의 매개 없이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과연 자아개념이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연구대상이 중학생으로 한정되어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인이나 아동에게까지 연구대상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참고문헌

- [1] 김경신,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1987.
- [2] 김용래, “자아개념과 학습자 변인의 경향성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논총 제11집, 1994.
- [3] 박지원, “사회적 지지적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1985.
- [4] 박현진,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1996.
- [5] 송인섭,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1989.
- [6] 심하진, “자아개념 형성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학교, 1999.
- [7] 이영미,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탄력성이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2007.
- [8] 이영자,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1996.
- [9] 이혜진, “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2002.
- [10] 한상분,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 논문, 연세대학교, 1992
- [11] Block, J. H., &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es(Ed.), Mi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Erlbaum, 1980.
- [12] Block, J., & Kremen, A. 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1996..
- [13] Bonanno, G. A.,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stan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ist, 59, 20-28, 2004.
- [14]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38, No. 5, 300-314, 1976.
- [15] Kagan, J., “On the nature of emo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7-24, 1994.
- [16] Klohnen, E. C., “Conceptual analysis and

-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1996.
- [17] Mussen, P. H., Coner & J. J. Kagan,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ow, 1980.
- [18] Purkey, W.,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New Jersey: Englewood cliffs, 1970.
- [19] Rogers, C., “The organization of personality”, The American Psychologist, 1951.
- [20] Sarason, I. G., Levin, H. M., Basham, R. B., & Sarason, B. R., “Assessing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ist, 44, 127-139, 1983.
-

윤 상 근(Sangkeun Yoon)

[정회원]



- 2008년 8월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졸업(교육학 석사)
- 2009년 9월 ~ 현재 : 윤중중학교 교사

<관심분야>
상담심리

이 창 환(Chang Hwan Lee)

[정회원]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1999년 8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심리학과 (철학 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언어심리학, 인지심리학, 인지과학